

두 자녀와 아내를 미국으로 유학 보낸 '기러기 아빠' 박모(43)씨는 이번 추석에 온가족이 함께 '사이버 차례'를 지내기로 했다. 미국에 있는 자녀들은 인터넷 메신저로 전해오는 박씨의 진행에 맞춰 화상채팅용 카메라를 통해 모니터에 비친 차례상을 향해 절을 올릴 예정이다.

'e 편해진' 한가위?

일상 스며든 인터넷... 바뀌는 명절문화

차례상 차림은 30만원을 주고 대행업체에 맡기기로 했다. 혼자 사는 박씨가 일일이 제수음식을 장만하는 것이 여간 힘든 게 아니다. 대다 친지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과 친지가 한자리에 모인다는 의미만으로도 매년 고향을 찾아가던 발걸음이 잦아들고 있다. 직접 고향이나 묘소를 찾지 않고도 전화 한 통, 클릭 한 번으로 차례상 차리기에서부터 벌초까지

말했다. 최근에는 집 안에서 인터넷 클릭으로 차례와 성묘를 지낼 수 있는 사이버 차례도 등장했다. 명절 때 묘소를 찾지 못하는 후손들을 위해 납골당의 사진을 찍

화상채팅 카메라로

해외서 차례 지내

결혼 3년차인 강모(32)씨는 모처럼 직장서 얻은 1주일간의 쉼같은 추석연휴 동안 아내와 함께 호주로 해외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선상에 있는 조상묘를 벌초해야 하는 '숙제'는 벌초대행업체에 전화 한 통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해결했다. 대신 강씨는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조상님 묘소 사진을 올려놓고 '내년 설날 때는 꼭 찾아뵙겠다'는 글을 남기는 것으로 죄송한 마음을 감응하기로 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 풍경이 변하고 있다. '민족 대이동'이라는 용어를 치르고 제수음식 장만과 손님맞이로 바빠진다면, 사당도 조상의 음덕을 기리고, 가족



벌초·차례상 대행

'클릭' 한번으로 주문

대행해주는 업체들이 생겨나면서 가능해진 신풍속이다.

부산지역의 한 차례상 대행업체 관계자는 "문의전화하 하루 150여통 이상 오고 있지만 추석 전날과 당일 모든 주문을 처리해야 하는 일의 특성상 예정된 400세트 이상의 주문은 받지 않고 있다"고

'사이버 추모' 접속

조상께 성묘 해결

어 인터넷으로 보내주거나 사이버 비상에 조문실을 개설하는 것. 울진 부산 영락공원이 홈페이지에 개설한 '사이버 추모의 집'에는 벌써 1천200여개에 이르는 추모의 방이 개설됐고 이번 추석기간 3천~4천명이 다녀갈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젊은층들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추석 신풍속도를 바라보는 기성세대 시선은 금지만은 않다.

이모(65)씨는 "일부 젊은 세대들이 전통의식을 거주장스러운 것으로만 생각하고 무조건 비판만 찾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박태우·김백성기자 k103@busanilbo.com

대학가 외국인 위한 추석행사 풍성

추석을 앞두고 부산지역 대학들이 외국인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를 가졌다.

부산외대는 오는 4일 오후 6시부터 3시간 동안 남구 부산문화회관 영빈관에서 '제2회 외국인 교수·학생 추석 잔치'를 개최한다. 이번 추석 잔치에는 외국인 교수·학생 250명이 참여해 전통음식 만찬회, 민속공연, 노래자랑대회 등을 열 예정이다.

동서대는 오는 7일 중국인 유학생, 한국인 학생 등 60여명이 참여하는 '전통음식 체험행사'를 벌인다.

학생들은 두 나라의 전통음식을 만들어 나눠 먹고 한국인 학생들은 직접 만든 송편, 강정 등을 들고 외국인 기숙사도 방문할 계획이다.

경성대는 지난달 29일 교내 콘서트홀 앞마당에서 외국인 교수 및 학생, 가족들이 참여하는 '외국인 가족 한가위 축제'를 열고 널뛰기, 강강술래, 쥐불놀이 등 전통놀이를 즐겼다. 이날 행사장에는 '추석에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자'는 의미에서 구세군의 빨간 자선냄비가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김형기자 moon@

업체·복지재단 온정의 손길 잇따라

한가위를 앞두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3일 소년소녀가정 아동 40명과 함께 통도원다리아와 해운대 아쿠아리움 등을 방문하는 문화체험 행사를 갖는다.

또 삼성카드 부산 CRM센터 직원들은 지난 29일 삼성생명 빌딩 16층에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세대 아동 70명과 함께 끝없는 행사를 진행하고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증권선물거래소와 한국복지재단 부산지부는 지난 28일 KBS 부산홀에서 '다산다복 가정 어린이 후원회'

발' 행사를 개최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아동 330명을 초청해 공연 '비트서클' 티켓을 제공하고 후원금을 전달했다.

부산은행 코스모스회는 무의탁 어르신들을 위한 성금 1천500만원을 모았다. 올해 초 설날맞이 성금 전달에 이어 이번 성금은 홀로 어르신 300명에게 50만원씩 전달된다.

한국복지재단 이경진 부산지부장은 "곳곳에서 온정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도움이 필요로 하는 수많은 이웃이 있는 만큼 시민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혜규기자 iwill@

내일의 날씨 <3일>

지역	날씨	기온
서울	맑음	16~26 / 0~0
대전	맑음	13~26 / 0~0
광주	맑음	14~26 / 0~0
대구	맑음	14~26 / 0~0
진주	맑음	12~26 / 0~0
창원	맑음	15~26 / 0~0
남해	맑음	14~25 / 10~10
부산	맑음	17~25 / 0~0
제주	맑음	18~24 / 10~10

생활지수

외출지수 90

외출 준비

빨래지수 90

빨래하기 좋은날

식물지수 70

음식 주의

수면지수 70

쾌적한 편입

바다날씨

항목	풍향	풍속	파고
남해동부	북동~남동	6~11 0.5~2.0	
남해서부	북서~북동	7~11 1.0~1.5	
동해남부	북동~남동	6~11 0.5~1.5	
동해중부	북동~남동	6~11 0.5~1.5	
서해남부	북서~북동	6~11 0.5~1.5	
서해중부	서~북서	5~9 0.5~1.0	

주간날씨

구분	4	5	6	7	8
부산	☁	☁	☁	☁	☁
경남	☁	☁	☁	☁	☁
경북	☁	☁	☁	☁	☁
서울경기	☁	☁	☁	☁	☁
강원	☁	☁	☁	☁	☁
호남	☁	☁	☁	☁	☁



30일 오후 추석을 앞두고 부산 사하구 물운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하구지역 새터민과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어울림마당 행사가 펼쳐져 투호놀이를 하고 있다. 정대현기자 jhyun@

"북녘 그림지만, 외로움 덜었어요"

물운대복지관 '새터민 어울림마당'

"와! 모다, 모!" 지난 30일 오후 2시 부산 사하구 다대동 물운대종합사회복지관 4층 강당에서는 한바탕 웃음이 벌어졌다. 60여명의 참가자들이 4팀으로 나눠 한참 승부를 가린 끝에 한라산팀이 우승하자 팀원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물운대종합사회복지관이 마련한

이날 '추석맞이 사하지역 새터민 어울림마당'에 참여한 새터민들은 모두 50여명. 자원봉사자로 나선 다대동 주민과 사하소방대원들은 새터민들과 함께 남북의 공통 민속놀이 웃놀이 한 판으로 행사를 시작했다. 부인과 함께 두 아들을 데리고 나온 새터민 김모(34)씨는 "북에서는

추석을 이렇게 크게 쇠지 않는데 여기와 함께 즐기니 명절 분위가 난다"며 즐거워했다.

웃을 던지던 명성이 겹쳐서 작은 종이 한장이 돌았다. '대박로또' 추첨시간. 1에서 25까지의 숫자 가운데 6개의 숫자를 먼저 뽑았다. 추첨이 시작되자 일순간 침묵이 흘렀고 마침내 당첨번호가 불러진 곳곳에서 환호와 한숨이 엇갈렸다.

다음은 노래자랑. 연보라색 옷을 곱게 차려입은 이모(63) 할머니가 구성진 목소리로 '노들강변'을 뽑아내자 여가를 들썩이던 사람들이 하나둘 앞으로 나와 춤사위를 선보였다.

'동네잔치'가 시작된 것이다. 노래가 거듭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출판으로 모여들었고 결국 행사를 진행하던 자원봉사자들까지 함께 춤을 췄다. 4년 전 혈혈단신 남한에 내려와 혼자 살고 있는 장모(66) 할머니는 "명절이던 북에 두고 온 두 자식 생각이 더 간절한데 이렇게 자식 같은 사람들을 보니 외로움이 덜하다"며 "오랫만에 힘들었던 것이 조금은 풀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경희·정선연기자 miso@

지역을 지키는 희망의 메신저, 지역신문입니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 www.cln.or.kr

秋夕

항상 저희 무학마을 아껴 주시는 고액납금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풍성한 액절

마음마저 후후후해지는 명절 한가위

저희 무학이 함께하겠습니다

무학가족배상

무학 1호 700ml x 2병 (약주·과실주 선물세트)